

#관계#성장#마음#청소년#심리#우정#내면#갈등#사춘기#교실#자아찾기#자존심

안젤로와 안제오

최나미 지음 | 정문주 그림

독후활동지 교사용



교과연계

초등학교 5학년

- 국어 5-1 1. 대화와 공감
5-1 5. 글쓴이의 주장
5-1 10. 주인공이 되어
5-2 1.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5-2 3.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해요
5-2 4. 겪은 일을 써요

초등학교 6학년

- 국어 6-1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6-1 9.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6-2 1. 작품 속 인물과 나
6-2 5.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
6-2 8. 작품으로 경험하기

책 소개

교실에서 천사, 안젤로라고 불리는 게 자랑스럽고 그에 걸맞은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이 되어 주고 싶었던 열세 살 제오가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과 '내 마음은 어떨지' 사이에서 갈등하며 흔들리다가 결국은 '착한 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성장 이야기를 밀도 있게 담아냈습니다. 겉보기엔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유리처럼 여린 6학년 아이들의 관계, 감정, 자존심, 그리고 아슬아슬한 성장의 순간들이 생생하고 따뜻하게 펼쳐집니다. 교실 안에서 혹은 교실 밖에서 갈등을 이어 가며 서로를 마주하게 되는 사춘기 아이들에게 진정한 우정의 의미와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해 되새겨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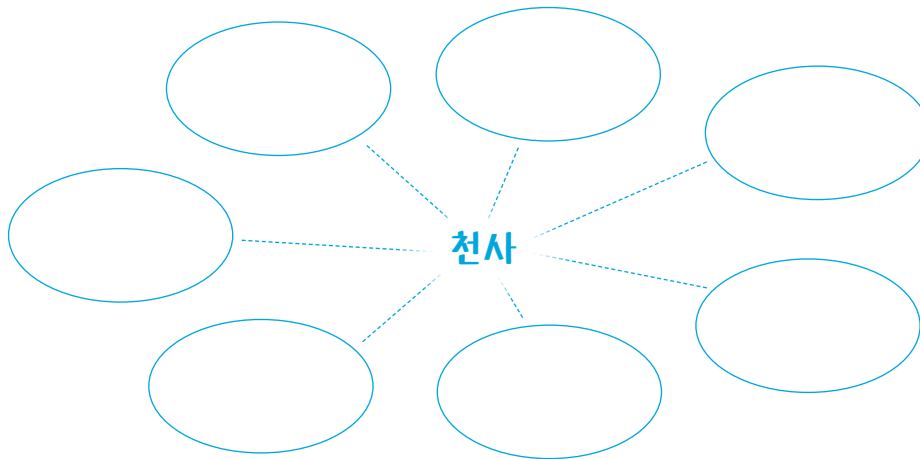
지은이 최나미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했습니다. 산이나 바다, 나무 같은 자연보다는 사람들의 변화무쌍한 심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관계 맺기에. 지은 책으로는 『고래가 뛰는 이유』 『엄마의 마흔 번째 생일』 『걱정쟁이 열세 살』 『천사를 미워해도 되나요?』 『학교 영웅 전설』 등이 있고, 청소년 책으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단어장』 『진실 게임』 등이 있습니다.





1. 표지 그림을 살펴보고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아래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보세요.



2. 마인드맵에 정리한 키워드를 조합하여 예상되는 책의 줄거리를 적어 보세요.

〈안젤로와 안제오〉 책의 내용을 시간의 흐름대로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며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나누어 요약해 보세요.



발단

6학년 제오는 친구들 사이에서 '안젤로(천사)'라 불리며 중재자 역할을 맡아 왔다. 친구 하진이는 자기 마음을 잘 챙기지 않는 제오를 걱정한다. 그러던 중 전학생 윤성이가 등장하고 반장 찬세와 갈등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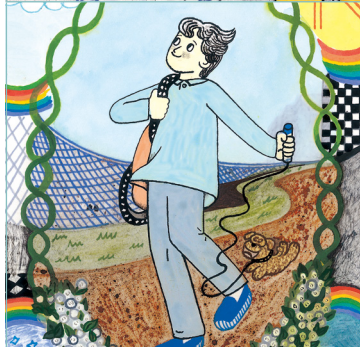
전개

제오는 전학생 윤성이가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지만, 오히려 윤성과 찬세의 갈등은 성격과 태도가 너무 다른 탓에 더 심화된다. 중재하려는 제오의 노력은 양쪽 모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제오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한편, 그런 제오를 지켜보는 친구 하진이는 더 답답해한다.



절정

어느 학교에서 전학 왔는지 숨기고 싶은 윤성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행동하는 찬세의 행동이 거슬린다. 둘의 대립이 치닫자 제오는 둘을 화해시키려 노력한다. 윤성과 찬세가 방과 후 만나기로 한 날, 윤성이에게 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제오가 도착하기 전에 윤성이가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벌어진다. 찬세는 자리에 없었고, 윤성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고 제오를 압박한다.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제오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갈등하며 점점 혼란에 빠진다.



결말

윤성이와 찬세는 각각 다른 이유로 학교를 떠나 전학을 가게 되고, 방학 동안 제오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엄마의 말을 마음에 새긴다. 새 학기가 되어 준비위원회 제안을 받지만 거절한다. 결국 제오는 '착한 아이', '천사 안젤로'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한다.

독서 능력 평가

1. 제오가 친구들 사이에서 '안젤로'라고 불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④번

- 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 ② 반장을 맡았기 때문에
- ③ 피아노를 잘 쳐서 하진이가 추천했기 때문에
- ④ 친구들 사이에서 천사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2. 제오가 찬세에게 불만이 있어 저지른 행동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①번

- ① 찬세의 축구공 바람을 일부러 뺐다.
- ② 찬세 앞에서 윤성이 편만 들었다.
- ③ 하진이에게 찬세 욕을 했다.
- ④ 친구들에게 찬세의 약점을 말해서 찬세를 따돌렸다.

3. 제오에 대한 하진이의 마음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②번

- ① 윤성이를 끝까지 믿어 주기를 바랐다.
- ② 제오가 천사 역할을 내려놓고 솔직해지기를 바랐다.
- ③ 무조건 찬세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다.
- ④ 선생님께 모든 문제를 의논하기를 바랐다.

4. 외모부터 눈에 띄는 윤성이는 전학 가서 만난 반 친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겉모습은 뼈뺀해 보이지만 윤성이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①번

- ① 새로운 환경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 ② 반 친구들을 무시하는 마음
- ③ 제오를 질투하는 마음
- ④ 선생님을 시험해 보려는 마음

5. 윤성이와 찬세 사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③번

- ① 두 사람의 성격과 태도가 너무 달라서 부딪히게 되었다.
- ② 제오와의 관계에서 서로 은근한 경쟁을 하며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다.
- ③ 반 아이들의 인기 투표 때문에 서로를 싫어하게 되었다.
- ④ 방과 후 사고로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더욱 강해졌다.

6. 제오가 찬세에게 불만이 있어 저지른 행동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①번

- ①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 ② 가해자로 오해를 받았다.
- ③ 선생님께 혼이 났다.
- ④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7. 제오의 이모가 제오에게 해 준 말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②번

- ① 윤성이와 찬세 모두와 화해하라고 조언을 해 주었다.
- ② 다정하고 친절하 것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 주었다.
- ③ 엄마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
- ④ 친구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

8. 제오가 2학기 시작 후 친구들의 '학급 준비 위원회'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③번

- ①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 ② 엄마와 이모가 반대해서
- ③ 더 이상 '천사 안젤로'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서
- ④ 윤성이와 찬세 모두 전학을 가 버려 속상해서



1. 친구들 사이에서 안젤로라고 불리는 제오는 마음과는 다르게 친구들에게 오해를 사거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2. 책 속에서 공감되지 않았던 인물이 있다면 누구였는지 이유와 함께 적어 보세요.

3. 제오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이 제오와 같은 반 친구라면 그 순간의 제오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나요?

4. 제오 엄마가 말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5. 윤성이와 찬세의 사건을 제오와 하진이는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친구와 생각이나 의견이 달랐던 경험이 있나요?

6. 윤성이, 찬세, 제오 세 친구 사이의 갈등을 보며 만약에 내가 제오라면 윤성이와 찬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적어 보세요.

7. 제오는 갈등을 겪는 친구를 보면서도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한 친구들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제오와 같은 상황을 겪은 적이 있거나 혹은 문제 상황에서 방관했던 경험이 있다면 적어 보세요.

8. 제오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직언하는 하진이처럼 친구에게 충고하거나 충고를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이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함께 적어 보세요.

논리력
쑥쑥

토론 시작하기



1. 토론 시작하기

친구 사이에서 중재자가 꼭 필요할까?

- 찬성** 중재자가 있어야 갈등이 해결되고 큰 싸움을 막을 수 있다.
- 반대** 중재자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지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제오가 '천사 안젤로' 역할을 내려놓은 것은 옳은 선택이었을까?

- 찬성**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신을 찾는 용기 있는 선택이다.
- 반대** 친구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제오 엄마의 말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

- 찬성** 타인을 위해 사는 것보다 자신이 행복해야 진짜 의미 있다.
- 반대** 사회 속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 ① 위에 제시된 토론 주제 중 서로 토의하여 정해 보세요.
- ② A팀, B팀으로 모둠을 구성하세요.
- ③ 모둠별로 서로 의견을 나누며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보세요.
- ④ 각 팀에서 예상되는 반론을 생각해 보고 재반론을 생각해 보세요.
- ⑤ A팀, B팀 발표자 3~4명을 정하고 토론을 진행해 보세요

2. 토론하기 활동 기록지

모둠 이름 :

토론 주제 :

토론 내용 :

토론 결과 :

3. 토론 확장 질문

오늘 토론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바뀐 생각이 있다면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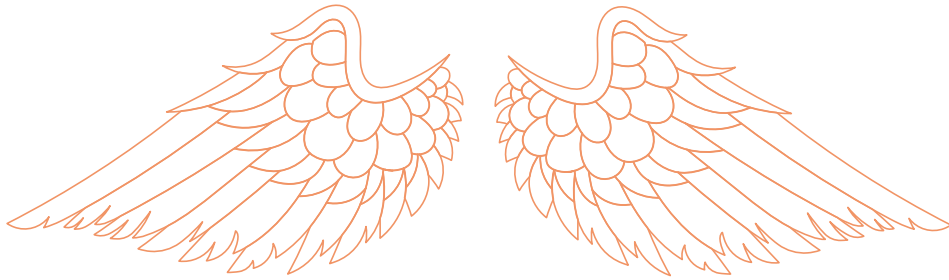
4. 토론을 통해 얻은 각자의 다짐을 포스트잇에 한 줄로 적어 칠판에 붙여 보세요.



교사용 TIP) 이런 토론 활동은 제오의 상황을 자신의 삶에 대입하면서, 토론 주제에 관해 깊이 사고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 발언을 정리할 때 정답 찾기보다는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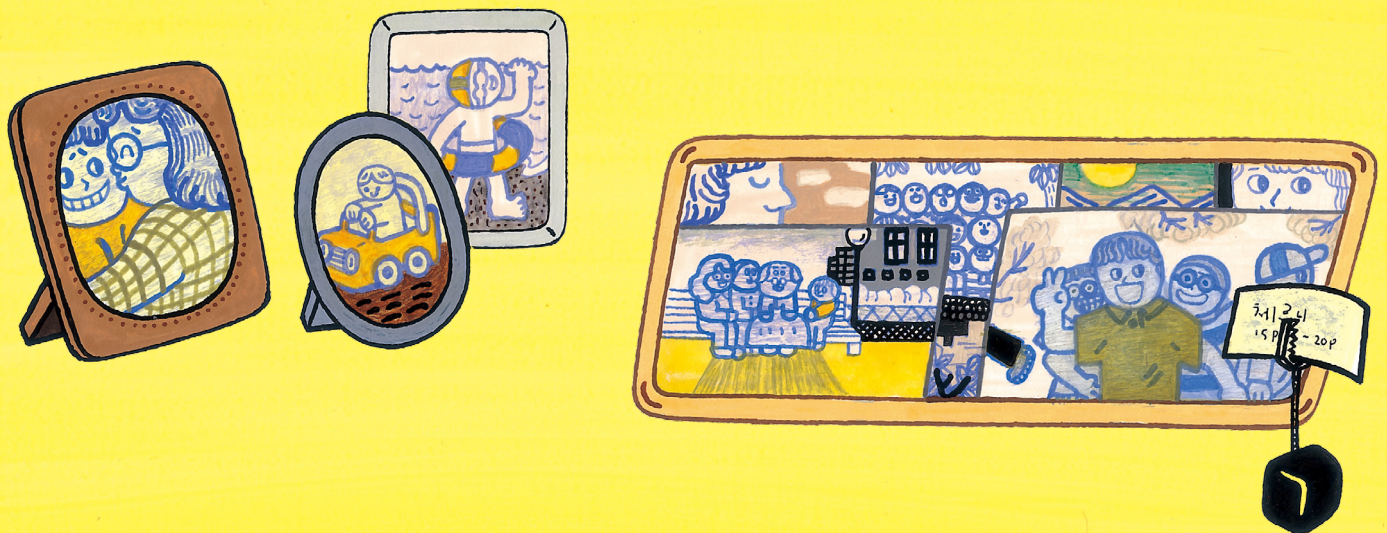


1. 혹시 제오처럼 천사 날개를 달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의 날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날개들이
왜 생겼는지 적어 보세요.



2. 날개를 내려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쓰는 응원 편지를
적어 보세요.





문지아이들은 1999년 첫걸음을 내딛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의 정서와 감각에 맞는 양질의 아동도서를
 활발히 출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문학성 높은 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드넓은 상상의 세계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해송문학상'을 제정하고 역량 있는 동화 작가들을 발굴하여
 아동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지성에 불을 밝히고 마음에 온기를 더해 줄
 알찬 책들을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문학과
지성사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7길 18

전화 02-338-7224

팩스 02-338-7221

홈페이지 <http://moonji.com>

